

“서울시는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서울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목표는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힘을 기울여 외부에너지 수역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2012년 7개 마을로 시작한 지구지킴이 에너지자립마을은 점점 늘어나 현재 15개 마을이 되어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며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자립마을마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문화가 정착되고 보람 있는 일자리도 창출되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발행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http://energy.seoul.go.kr>
 02-2133-3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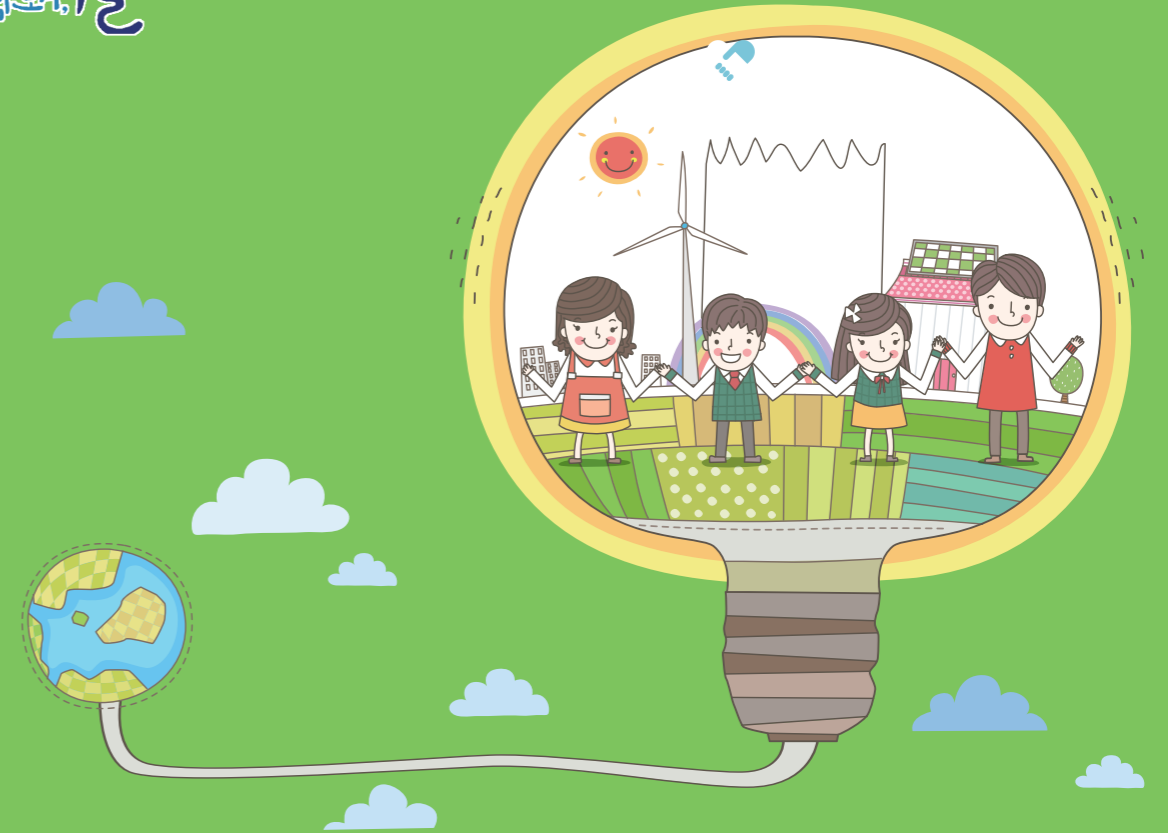
발행일 : 2015년 2월 27일

글쓴이 :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연구원,
 김소영 성대골사람들 대표, 신근정 녹색연합 팀장,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시민이 살리고, 시민을 살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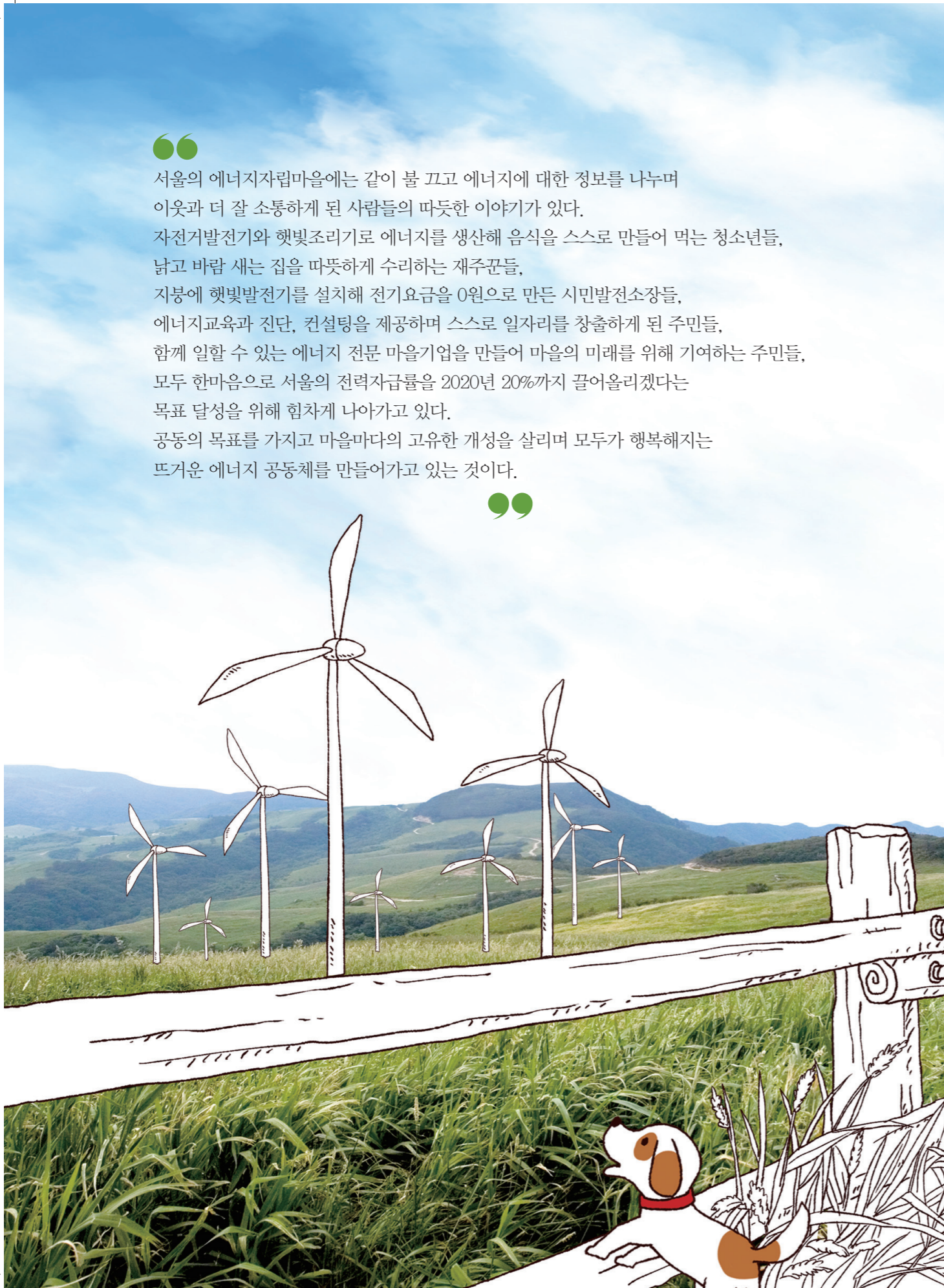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매뉴얼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매뉴얼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에는 같이 불 끄고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이웃과 더 잘 소통하게 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 자전거발전기와 햇빛조리기로 에너지를 생산해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청소년들, 낡고 바람 새는 집을 따뜻하게 수리하는 재주꾼들, 지붕에 햇빛발전기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0원으로 만든 시민발전소장들, 에너지교육과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 주민들, 함께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 마을기업을 만들어 마을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주민들, 모두 한마음으로 서울의 전력자급률을 2020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마을마다의 고유한 개성을 살리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뜨거운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의 비전과 추진과제

비전

에너지 위기 회복능력을 가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1단계 공감대 형성, 2단계 함께할 주체 만들기, 3단계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4단계 에너지생산 : 개별 생산 및 협동조합 결성, 5단계 마을에너지경제 형성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절차

